



죽비와 목탁

이성연 기자

un82@buddhapia.com



### 장애인에 대한 교리적 오해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불교 표준 수화집이 올해 말 편찬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청각장애인들이 불교 표준 수화집의 발간으로 불법을 쉽게 접하게 됐다. 무엇보다 스님을 대머리로 표현하는 등의 잘못된 표현, 지역별 서로 다른 손 모양으로 사용 중인 불교 수화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다. 장애인에 대한 포교가 전문한 상황에서 청각장애인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아쉽게도 장애인 포교에 대한 관심 부족은 이웃 종교에 비해 여전히 심각하기만 하다.

회사상 등의 영향으로 장애를 전생의 과보로 받아들이면서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 정도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는 천안(天眼)제일 아나율은 시각 장애인이었고 다문(多聞)제일 우타라는 척추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부처님은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이 아닌 사회 속에서 그 능력을 평가 받게 하는 미래지향적 장애인관을 제시했다. 또 경전에 나오는 장애인의 모습은 소외가 아니라 주도·적극적인 모습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식의 퍼주기나 사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모색해야 한다.

장애인 불자들의 모임 '보리수 아래'가 월1회 여는 정기법회에는 150여 명의 회원 가운데 한 달에 6-8명만이 고작 참석하고 있다. 사부대중 대다수는 장애인 법회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대부분의 스님이나 신도들이 장애인에 대한 접근법을 모르는 데 원인이 있다.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포교 정책은 후원이나 성금을 전달하는 방식이 전부이다.

개화사상을 토대로 선교사의 복음전도와 함께 시작된 장애인 복지사업을 불교계가 벤치마킹했으나 미흡하기만 하다. 특히 불교는 인과응보설과 운

운수남자들이 모여 일대사 인연을 밝힐 불기 2553년 하안거가 5월 9일 시작됐다.

이번 안거에는 조계종에서만 전국 100여 선원에서 2200여 수좌 스님들이 방부를 들었고, 일반사찰 스님과 신도들도 하안거 기간 동안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전국 사찰에서는 8일 저녁, 결계대중이 모인 가운데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龍象榜)을 작성했다. 9일 사찰별로 봉행된 결계법회에는 수행자들에게 씀 없는 정진을 당부하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을 비롯한 방장 스님 등 큰스님의 자비법문이 이어졌다.

◇법전 스님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라는 제하의 하안거 결계법회를 통해 전국 수좌 스님들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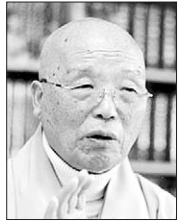
스님은 조주 선사(조주수) 화상에



조계종정 법전 스님.



태고종정 혜초 스님.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

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화상이 "물김이를 더듬고 있다"라고 답했고, 다시 선사가 "한 방울의 물도 없거늘 무엇을 더듬는다는 말인가"라고 말한 '조주탐수(趙州探水)'의 공안을 화두 삼아 이번 한철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도 "도반이 가는 길에 시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하안거 결계법회를 내렸다.

혜초 스님은 법어에서 "명안중사

의 가르침에 의지해 각자가 가는 길에 의심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한 도반이 가는 길에 시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이어 "외호대중과 선방대중 그리고 학인이 모여 총림을 이루는 의미는 서로가 탐마하여 도를 이루고자 함이니 대중은 원력으로 체(體)를 삼고, 하심으로 용(用)을 삼아야 시은(施恩)을 녹여 복전(福田)을 이룰 수 있다"고 법문했다.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은 결

계법어에서 계·정·혜 삼학을 원만히 닦을 것을 강조했다. 스님은 "계행(戒行) 없는 정(定)은 죽은 물로, 죽은 물에 사는 용(龍)은 활력이 없고 정력(定力) 없는 지혜(智慧)는 견해(見解)일 뿐으로 생사(生死)의 길에서는 쓸모가 없다"며 "결계대중은 시은(施恩)을 저버리지 말고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부지런히 정진해서 늦어도 백중(百中)까지는 칠통(七通·중생의 무명)을 타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은 "일심본체를 바로 밝혀야 부처"라는 법문을 내렸다.

스님은 기속년 하안거 결계법어에서 "참된 정진은 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음이다"라며 "마음이 부처도 이루고, 중생도 짓는 것이니 일심본체(一心本體)를 바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은 "올바른 견해가 없다면 허기를 면할 수 없다"며 "신심으로 율령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공부를 하는데는 올바른 견해를 지나야 하지만 작금의 수행자들은 과거 선인들의 말씀을 새겨 의거하지 않는다"며 "간절한 믿음을 발하고 투철한 정진을 지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우·조동섭 기자

### "승랍기산 방식 전통 따르자"

####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 결의해 총무원 건의

조계종 내에서 이견을 빚고 있는 승랍기산 방식에 대해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전통방식을 따를 것을 주장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성타·불국사 주지)는 5월 6일 양산 통도사에서 제4회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월정사 범주사 마곡사 수덕사 직지사 등 17명의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참석해 종단헌안과 승랍법 관련 및 승가대학 운영과 관련한 내용 등을 논의했다.

주지스님들은 "승려의 승랍은 비구, 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한다"는 승랍법 제5조가 현실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구족계를 수계하면 사미계와 사미니계의 수계일로부터 승랍을 기산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를 것을 총무원에 건의키로 했다.

현재 선원(큰방대중) 중심의 방합

방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종단차원에서 방합목을 제작·보급할 것 등 총무원에 요청키로 했다.

이러 주지스님들은 승가교육의 전승을 위해 승가대학(강원)에 대해서는 정원화한선을 적용하지 않고 각 사찰 교육지에 따라 지속적인 승가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원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주지스님들은 △사미계 및 사미니계 수계 자격에 있어 교구본사 주지에 의해 검증된 행자들은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신체감마시 고려해 줄 것 △예비승려들의 사미계와 사미니계로의 명칭 변경 등 승가교육의 양질화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지를 모았다.

특히 회의에서는 용건승일원 정조 효행유적지 보전에 관한 100만인 서명 동점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과 대통령 건의서를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조동섭 기자

### 은해사 성보박물관 '개관'

#### 전시실 2개·수장고 갖춰... 5개 분야 전시

팔공산 은해사의 성보문화재를 통해 은해사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성보박물관이 개관했다.

은해사(주지 돈관)는 5월 2일 성보박물관 개관식을 열고, 사찰이 소장한 성보문화재를 일반에 공개했다.

은해사 성보박물관은 460㎡ 규모의 전면 9칸, 측면 5칸의 'ㄱ'자형 1층 건물로 2개의 전시실과 수장고를 갖췄다. 2개의 전시실은 사찰역사, 불교조각, 회화, 공예, 조계종 원로의원을 지낸 일타 스님(1929~1999) 유품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유품이 전시 중이다.

박물관에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 가운데 현존하는 가장 큰 글씨로 알려진 '불광(佛光)'을 비롯해 보물 제1604호 영헌은해사순치3년명 금고 및 금고거와 경북도유형문화재 제342호인 후불탱화

및 삼장탱화 등 205건 540점 성보문화재가 교환·전시된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은해사 본말사 및 산내암자에 소장돼 있던 중요한 성보문화재의 도난과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전시를 위해 1996년부터 불사를 시작해 10여년 만에 불사를 회향하게 됐다"며 "앞으로 은해사를 찾는 대중들에게 본말사 문화재 및 성보를 소개할 수 있는 박물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관식에는 문도대표 해인 스님을 비롯해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박진현 경북지방경찰청장, 이동훈 헌법재판소 재판관, 손무현 육군3사관학교장, 이한구, 정희수 국회의원, 김영석 영천시장 등 5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 진각종 집행부 구성

#### 28대 통리원·11대 교육원

진각종 제28대 통리원 집행부와 제11대 교육원 집행부가 구성됐다.

통리원장 해정 정사는 5월 1일자로 총무부장 겸 진각대학원장, 밀교신문 편집인인 서울교구청장 겸 남부심인당 주교 수성 정사를 임명했다. 또 재무부장은 대구교구청장 겸 희락심인당 주교 관천 정사, 포교·문화사회부장은 前 포교부장 겸 밀입심인당 주교 덕정 정사를 임명했다. 교육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원 교법부장은 前 통리원 재무부장 겸 명선심인당 주교 지정 정사를 임명했다.

해정 정사는 또 통리원 기획국장 겸 국제불교연구원장에 정정심인당 주교 상명 정사, 전산국장에 김상심인당 주교 수해 정사, 포교국장에 불정심인당 주교 범주 정사, 문화사회국장에 법상심인당 주교 대원 정사를 임명하고 진각대학원 교학처장에는 경전심인당 주교 해덕 정사를 임명했다.

김성우 기자

###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 당선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 주지에 우송 스님(백담사 주지·사진)이 당선됐다.

신흥사는 5월 7일 신흥사 설법전에서 열린 산중총회에서 단독출마한 우송 스님을 주지로 선출했다.

우송 스님은 1980년 서울 대각사에서 대입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하동 쌍계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



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총무원 상임감찰, 신흥사 기획국장 겸 총무국장을 거쳐 백담사 주지를 역임했다.

한편, 4월 27~29일 신흥사 주지 후보 등록에는 무산 스님(현 신흥사 주지), 도후 스님(고성 건봉사 주지) 등이 참여했으나, 산중총회를 앞두고 두 스님은 후보를 사퇴했다.

조동섭 기자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온누리에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사단법인 대승불교조계종

### 종정 법공 성운 부종정 법성 해암 원로원장 법각 지오

총무원장	청송 청파	서울교구원장	도현 무하	종회의장	성관 현각
선원장	성관 행운	경기북부교구원장	덕진 도광	종회부위원장	도환
종정사서실장	성득	경기남부교구원장	지공 도월	종회의원	승삼 도우
원로위원		강원교구원장	윤성 정고	종회의원	도경
총무부장	대월 동산	충북교구원장	도환	종회의원	동성
감찰부장	동암 원호	충남교구원장	도원	종회의원	지안 공허
포교부장	운봉 해공	경남교구원장	영산 동우	종회의원	도광
문화부장	보공 인중	부산교구원장	동만 동조	종회의원	경운
교육부장	동담 백천	경북서부교구원장	도균 성해	종회의원	백련 동담
선원부장	덕진 도광	울산교구원장	도우 승삼	종회의원	운봉 해공
사회부장	성해 도균			종회의원	인중 보공
감사부장	도봉 경운				

※ 종도모집 : 함께 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 모십니다.

■ 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 : 302-819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84-6 13길 42호  
전화 042)222-6522 / 팩스 042)535-5522

■ 종단법인 사무소 : 621-893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459-2번지 시례마을  
전화 055)336-0108, 335-0178 / 팩스 055)336-7070 / 핸드폰 011-595-6522

## 몸 마음 영혼의 완전한 치유법과 최강의 양택 발복법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 참나(여래장)의 즉각적인 발현법 완성!

수 천년 동안 어렵פות한 말로만 전해져서 긴가민가하던 전설이 20년간의 시행착오와 숭한 인상을 통해 마침내 누구나 즉각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 참나(여래장)가 즉각 발현되면 전신에 경력이 일거에 타통된다.

각종 암을 비롯한 당뇨, 고·저혈압, 아토피, 목·허리디스크, 최추축만, 자기면역질환 등등 거의 모든 난치성 질환들이 단시일에 근저된다. 답석마저도 녹아서 소멸된다.

● 참나(여래장)가 즉각 발현되면 마음과 영혼의 장애가 치유된다.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충동 등등의 심적 장애가 말끔히 해소된다. 특히 빙의, 귀절, 지박령 등등의 현상은 번잡한 절차 없이 원천적으로 해결된다.

● 참나(여래장)가 발현되면 최강의 양택 발복 능력자가 된다.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고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체험으로 증명된다.

### 우주생성의 근본원리로 자타의 본성을 관하는 비법!

부조화로 고통 받는 존재의 구성요소들을 규명하고 조정하여 조화로운 상태로 환원하는 비법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1:1 방식으로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입니다)

###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 전화주세요 02)511-5945 / 010-9336-2698